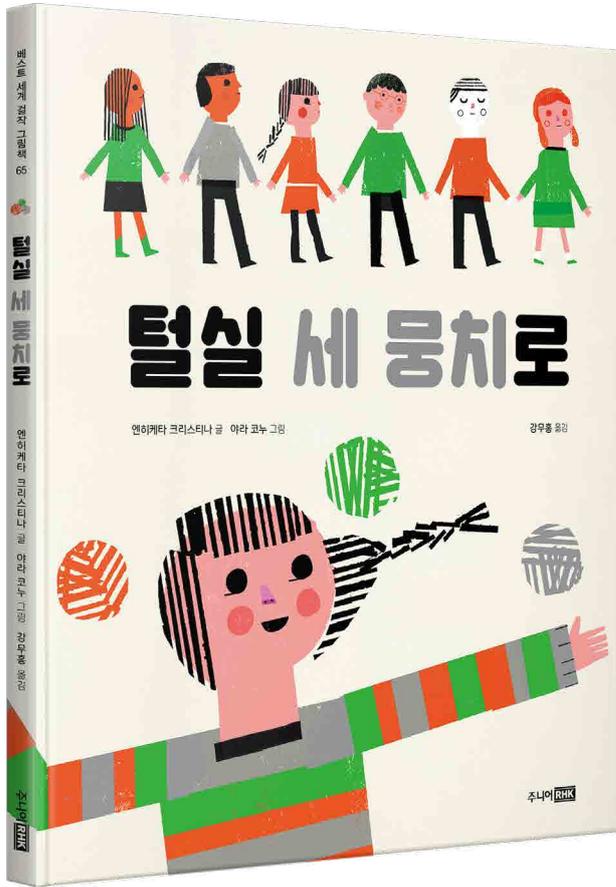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털실 세 뭉치로>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미국
스키핑 스톤 아너상
수상작

포르투갈
아마도라 BD 어워드
최우수어린이책

포르투갈
전국 리딩 플랜
대상 도서

이탈리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작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어린이들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이해하도록 편안하게 이끌어 주는 그림책.

강무홍 (아동문학 작가, 번역가)

털실 세 뭉치로

글 엔헤타 크리스티나 | 그림 아라 코누 | 옮김 강무홍 | 쪽수 32쪽 | 값 15,000원 | ISBN 978-89-255-7416-5 (77870) | 4세 이상, 초등 전학년, 100세 그림책

교과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2 국어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4-1 국어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4-2 도덕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3-2 국어 7. 글을 읽고 소개해요

4-2 국어 7. 독서 감상문을 써요

5-2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제목의 '털실 세 뭉치'는 회색, 초록색, 주황색 세 가지 색깔의 털실 뭉치입니다. 책 속 주인공들은 회색, 초록색, 주황색 중 한 가지 색깔로 된 무늬 없는 스웨터만 입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웠지요.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군인처럼 간격을 딱딱 맞추어 걸어가 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주인공 엄마는 용기를 내 스웨터 끝을 잘라 실을 풀어 털실 세 뭉치를 만듭니다. 그러고는 세 가지 색이 알록달록하게 섞인 새 스웨터를 뜨기 시작합니다. 이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동네 사람들도 스웨터를 풀어 다양한 무늬가 들어간 스웨터를 뜨게 되고,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털실 세 뭉치로》는 획일화된 사회, 독재 정치 하에 살아가는 한 가족이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예술적인 그림과 함께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1919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파시즘은 여러 국가에서 독재 정치 체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즉, 파시즘이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공고히 하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파시즘 체제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처참히 짓밟히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민족을 차별하고, 사람 목숨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 개성, 협력, 평화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잊고 살았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1960년대 이후 파시스트 독재를 피해 포르투갈을 떠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자유로운 나라를 찾아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정착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개성을 드러내기 어려웠고, 자유를 보장받지도 못했습니다. 파시즘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파시즘에 자신의 자유와 개성, 평화를 내어 주었어요.

《털실 세 뭉치로》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주제로 한 수업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읽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우리 아이들이 자유와 평화가 없는 삶, 개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은 어떨지 마음 깊이 생각해 보고, '자유와 민주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현지(경기도 수원 안릉초등학교 교사)

나눔과 배려를 통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이 아이들을 통해 매일 한 뼘 더 성장하는, 열정 가득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림책을 사랑하고 그림책으로 하는 수업을 좋아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현지선생님의 현지나라' 운영
- 온책읽기 자료 다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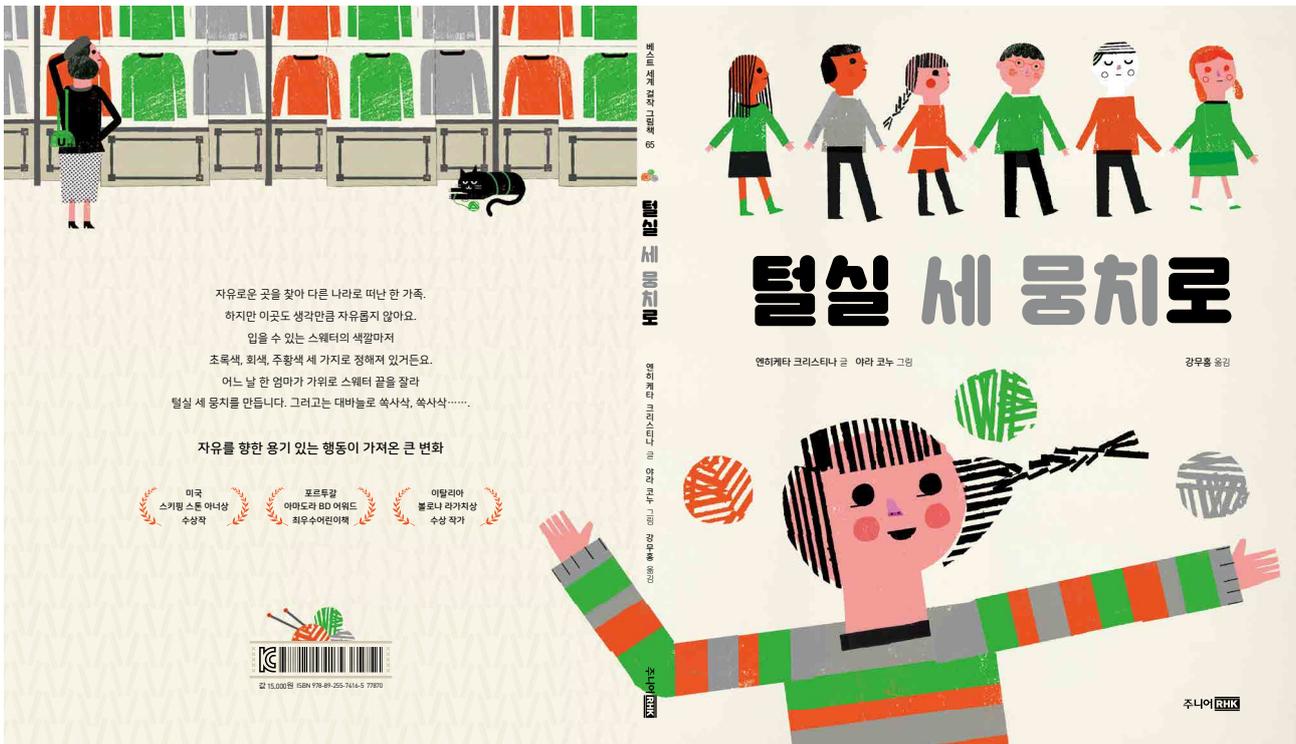
미션 1 : 표지를 살펴며 이야기 상상하기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봅시다.

주인공 아이는 세 가지 색 줄무늬 스웨터를, 다른 아이들은 한 가지 색으로 된 무늬 없는 스웨터를 입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입을 수 있는 스웨터 색이 세 가지로 정해져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뒷표지에는 옷 진열장 앞에서 있는 여성이 있어요. 옷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주인공들이 '털실 세 뭉치로' 무슨 일을 할까요?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미션 2 : 주인공의 상황과 마음 이해하기



주인공이 여덟 살이었을 때,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속삭였던 단어들의 의미를 인터넷으로 찾거나, 한자어를 보고 유주해 빈칸을 채워 보세요. 이 단어들을 주인공들의 상황과 연결하여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엄마 아빠가 서로 속삭인 단어의 의미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단어	의미
무지 (없을 무, 알 지)	
공포 (두려울 공, 두려워할 포)	
전쟁 (싸움 전, 다들 쟁)	
감옥 (불 감, 옥 옥)	
추방 (쫓을 추, 놓을 방)	

· 주인공 가족의 상황 및 힘들어하는 이유

미션 3 : 주인공이 되어 질문에 답하기



여러분이 책 속 인물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고, 인터뷰 질문에 답해 봅시다.

엄마가 스웨터 끝을 잘라 도르르 실을 풀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주인공인
여덟 살 아이

새 나라의 여러 모습들을 보며 실망감과 답답함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세 자녀에게 이런 획일화된 세상 대신 물려주고 싶은 세상이 있으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

광장에서 다양한 무늬가 들어간 스웨터를 입은 주인공 아이와 엄마 아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스웨터를 풀어
새 옷을 뜨는 어른

미션 4 : 자유를 상징하는 나의 물건 찾아보기



여러분이 가진 물건 중에 자유를 상징하거나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이 있나요?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주변에 그 물건과 이유를 써 봅시다.

그림책

그림책을 읽을 때만큼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림책에만 푹 빠져서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내 모습

미션 5 : 나만의 스웨터 디자인하기



아이들이 다양한 무늬가 들어간 스웨터를 입고 광장으로 나가자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대바늘과 털실을 가지고 광장으로 모여들어요.
여러분이 뜨개질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하나뿐인 스웨터를 디자인해 보고, 색도 입혀 봅시다.



미션 6 : 생각 넓히기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까요? 책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도 있습니다. 작품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사실, 내용을 묻는 질문 (책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 주인공 가족이 원래 살던 나라를 떠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 엄마가 주인공의 머리를 빗어 주며 떠올린 생각은 무엇일까요?

2. 생각을 묻는 질문

- 주인공은 왜 학교와 집들이 회색 신발 상자 같다고 생각했을까요?
- 여러분이 작품 속 상황에 있다면, 다양한 무늬가 들어간 스웨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처럼 용기 내서 뜨개질할 수 있었을까요?

미션 7 : 작품 더 깊이 이해하기



《털실 세 뭉치로》는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포르투갈 그림책입니다. 책 마지막에 작품의 배경이 된 실제 역사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본 뒤, 이번 미션에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작품을 읽으면 이 책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포르투갈의 독재자, 살라자르

주인공 가족이 원래 살던 나라, 포르투갈은 당시 총리 '살라자르'의 독재 정치 하에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살라자르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검열제를 실시하고, 자신의 정치를 반대하는 세력을 추방하고 감옥에 수감했어요. 또한 하나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일당 독재 체제를 수립했어요. 살라자르는 이러한 방식으로 1932년부터 1968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포르투갈을 통치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털실 세 뭉치로》 속 주인공 가족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체코슬로바키아 : 1968년 프라하의 봄, 1989년 벨벳 혁명

체코슬로바키아에 도착한 주인공 가족은 획일화된 도시, 개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에 또다시 실망합니다. 포르투갈과 비슷한 사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도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기인 '프라하의 봄'이 찾아옵니다. 프라하의 봄은 1968년에 일어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1948년 2월, 일당 독재 체제가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심각한 경제난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지요. 1968년 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고, 민주·자유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언론의 자유, 검열 폐지, 민주적인 선거 제도 마련 등 여러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은 '프라하에 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체코의 이러한 상황이 동유럽 국가들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고, 민주화 운동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는데,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이루어 낸 혁명이라는 의미를 담아 '벨벳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포르투갈 :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살라자르 정권 말기, 포르투갈은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독립을 주장하는 식민 국가들과 전쟁을 지속했고, 내부적으로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징집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독재 체제에 대한 분노 역시 커져갔습니다. 1974년에는 전쟁을 끝내자고 외치던 장군이 해임되자, 장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카네이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혁명군은 정부 기관을 점령했고,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자유를 외치며 혁명군의 총구에 카네이션을 달아 주었습니다. 결국 당시 총리였던 마르셀루 카에타누는 브라질로 망명하였으며, 빨간 카네이션은 비폭력 혁명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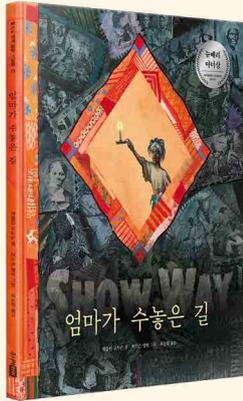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주제로 한 그림책입니다.
같은 길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는 아이가 세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무엇이든, 언젠가는

슬프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연대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모두 함께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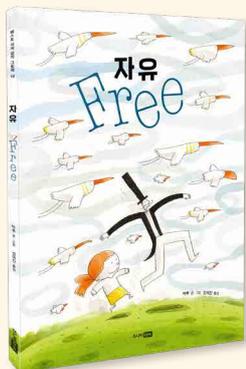
어맨다 고먼 글 | 크리스티안 로빈슨 그림 | 김지은 옮김



엄마가 수놓은 길

8대에 걸친 흑인 여성 가족의 삶과 여정을
조각보 퀼트를 매개로 보여 준다. 차별과 혐오 속에서
자유를 향해 분투하며 세대를 이어 온
여성들의 강한 생명력과 비장한 용기를 담은 그림책

재클린 우드슨 글 | 허드슨 탈벗 그림 | 최순희 옮김



자유 FREE

국경 앞에서 가로막힌 서커스단!
서커스단의 구성원인 사람과 새의 관계를 통해
자유를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

바루 글 · 그림 | 김여진 옮김